과연 스위스 여름답다, 청량한 수상 액티비티.

스위스 도시에서 물놀이 한 판

현지인들의 여름 도시 사용법 – 물에서는 이렇게 논다
-스탠드 업 패들, 카약, 웨이크서핑으로 스위스 물 만난다
-도심에서 만나는 해변 감성, 호숫물과 연결된 야외 수영장
-기차, 크루즈, 요트 타고 편안하게 수상 여행해도 좋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관광객들이 북적대는 명소 중심의 여행법보다는 좀 더 자연과 가깝고, 공간적인 여유가 느껴지는 여행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스위스 현지인들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즐길까? 관광대국에 살면서, 스위스의 매력을 속속들이 아는 현지인들은 관광객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즐긴다. 전 세계를 여행하기 좋아하는 스위스 사람들이 여름을 맞아 자기 동네의 매력을 어떻게 즐기는지 소개한다.

호수, 강, 분수대... 물은 스위스의 수많은 도시를 더욱 개성 있게 만들어 준다. 특히 여름이면 물 위에서, 물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현지인들의 여름 도시 사용법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물놀이다.

1. 취리히(Zürich) 호수 스탠드 업 패들(Stand up paddle)
SUP 는 스탠드 업 패들(Stand up paddle)의 약자로, 스위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상 스포츠다. 패들을 리드미컬하게 저으며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물소리와 함께 자유와 해방의 기분이 펼쳐진다. 지난 세기, 하와이의 서핑 강사들은 보드에 서서 패들을 저으면 물에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새로운 수상 스포츠 트렌드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곧 미국에서 새로운 레포츠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소문이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없이 많은 호수와 강이 있는 스위스는 자연스럽게 스탠드 업 패들러들의 천국이 되었다.

취리히에서는 최근 SUP 가 로컬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다. 제바트 우토케(Seebad Utoquai)를 찾아가면 스탠드 업 패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3-4m 길이의 보드에 서서 노를 저으며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를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다. 처음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관광객들도 쉽게 도전해 볼 만하다. 게다가 스탠드 업 패들로 취리히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SUP 시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참가해볼 만하다. 이른 새벽 고요 속에서의 글라이딩이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오후 한때의 패들링이든, 낭만적인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물을 향해 나아가든, SUP 는 모두가 하루 중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임이 분명하다.

2. 노을을 향해, 루체른(Luzern) 호수 노 젓기 체험
루체른 호수의 낭만적인 저녁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노을에 붉게 물든 저녁 태양을 향해 카약을 타는 것으로, 잊지 못할 체험이 되어줄 것이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카약 투어는 5 월부터 9 월까지 루체른 호수에서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로컬들에게는 퇴근 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강습도 받을 수 있는데, 패들을 잡는 올바른 방법, 뒤집히지 않는 방법, 휘청대는 카약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배울 수 있다. 완전 초보도 참가할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누구에게나 처음으로 노를 젓는 순간이 있다. 루체른 호수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정은 더욱 설렌다. 30 여 분간 노를 젓고 나면 그룹은 메겐호른(Meggenhorn)에 있는 예수상을 만나게 된다. 브라질 리오(Rio)에 도착한 것만 같은 풍경이다. 두 팔을 활짝 벌린 예수상은 엔틀레부흐(Entlebuch) 출신의 조각가가 만든 것으로,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보다 30 여 년이나 빨리 만들어진 20 세기 초반의 작품이다. 호반에 있는 조막만 한 섬에 놓인 작은 예배당은 훨씬 오래된 것이다. 뱃사람을 수호하는 성인인 성 비숍 니콜라우스(Bishop Nikolaus)에게 바쳐진 예배당이다. 예수상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에서 잠시 쉬며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마법 같은 고요를 맛볼 수 있다. 얕은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일고, 청둥오리와 뿔 농병아리들이 카약 주변으로 원을 그린다. 호수 너머로는 강렬하게 붉은 태양이 물 속으로 점점 잠기고 있다. 물결과 물결이 만나 부서지고, 호수 위에서의 여정은 계속 이어져 간다.

카약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일몰이다.
전설로 가득한 루체른을 대표하는 산, 필라투스(Pilatus)는 불을 뿜어내는 모양새다. 용의 전설로 유명한 필라투스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용하다. 익숙한 배경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풍경으로 마지막 셀카를 남기고 카약 초보들은 루체른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카약 대신 카누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피크닉 및 호수에서의 수영도 즐길 수 있다.

3. 래티셰 철도(Rhätische Bahn) 따라 펼쳐지는 라인 협곡의 절경
보더 라인(Vorder Rhine) 및 힌터 라인(Hinter Rhine)강은 라이헤나우(Reichenau)에서 합쳐지는데, 알파인 라인(Alpine Rhine)의 발생지로 알려져 있으며, 라인 협곡으로 향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10,000 여 년 전에 발생한 플림스(Flims) 거대 산사태 중에 천억 입방 미터 이상의 바위가 절벽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그 뒤로 힌터 라인강은 700m 두께의 바위 더미 아래에 묻히고 말았으며, 그 과정에서 25km 길이의 호수가 생겨났다. 그러나 점차로 강은 바위 더미 깊숙이 물길을 내었고, 호수는 말라버렸으며, 라인 협곡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현지인들은 로망슈어로 라인강을 부른다. 루이나울타(Ruinaulta)라는 이름으로, 채석장을 뜻하는 “루이나(Ruina)”와 높다는 뜻의 “아울타(aulta)”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희귀한 새, 하얀 절벽, 기암이 합쳐져 자연이 탄생시킨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 내는 곳이 라인 협곡이다.

이런 진기한 자연의 품속을 가이드 없이도 쉽게 탐험해 볼 수 있는데, 하이킹이나 자전거는 물론 카누나 카약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 여행자들에게 무엇보다 편리한 방법은 기차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한 장만 있으면 라인 협곡을 지나는 래티셰 기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트린(Trin)과 일란츠(Ilanz)를 연결하는 철도 구간과 타민스(Tamins) – 플림스(Flims) – 팔레라(Falera) – 일란츠(Ilanz) 구간을 잇는 포스트 버스, 일란츠(Ilanz) 및 베르삼 사피엔(Versam Safien) 구간을 잇는 포스트 버스를 타볼 것을 권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포스트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 루체른 호수, 사피르 파노라마 요트(Saphir panorama yacht)
시크한 분위기, 수면에 닿을 것만 같은 테라스, 그림 같은 호수와 도시, 산의 풍경이 여유롭고 쾌적한 보트 여정을 만들어 준다. 사피르 파노라마 요트를 타고 루체른 호수를 떠다니다 보면,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이다.

편안한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 시간가량 루체른 호수 위를 미끄러져 달리며 절경의 감상할 수 있는데, 요트처럼 지붕이 개방되어 있어 오픈카를 탄 듯한 기분이 든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지붕을 닫을

수도 있어 걱정은 없다. 메인 데크에는 독특한 아쿠아 테라스가 있는데, 호수에 바로 개방되어 있으며, 바에서는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무료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하면 루체른의 역사를 비롯해 주변 풍경에 대한 정보도 청취할 수 있다.

물 위로 부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얼굴 가득 찬란히 비추는 햇살을 즐기다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휴가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5. 루체른 호수 위 섬머 바
루체른 시민들은 여름에만 오픈하는 호숫가 바 하나에 자리를 잡고 한잔한다. 루체른 호수 주변으로 펼쳐진 대단한 풍경을 안주 삼아 말이다.

이런 섬머 바는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는데, 우프쉐티(Ufschötti), 에우로플라츠(Europaplatz), 로이스좁프(Reusszopf), 인젤리(Inseli)가 대표적이다. 부활절부터 9 월 말 정도까지 오픈한다. 음식과 함께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며, 가끔씩 음악 공연도 마련된다. 루체른 최고의 섬머 바에는 다음이 있다.

- 비치바(Beach-Bar), 우프쉐티(Ufschötti)
- 볼리에르(Volière), 인젤리(Inseli)
- 뷔베트(Buvette), 인젤리(Inseli)
- 도크(Dock) 14, 에우로플라츠(Europaplatz)
- 노르드폴 루체른(Nordpol Luzern), 로이스좁프(Reusszopf)
- 제바트 루체른(Seebad Luzern), 루체른(Luzern)
- 선셋바(Sunset Bar), 호텔 제부르크(Hotel Seeburg)
- 비치 클럽 몬타나(Beach Club Montana), 아르 데코 호텔 몬타나(Art Deco Hotel Montana)
- 펜트하우스(Penthouse) - 360° 루트탑 바(Roof Top Bar)

6. **베른(Bern)의 아레(Aare) 강 수영장, 마르칠리(Marzili)**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가 수영장은 마르칠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아레 강가에 위치해 있다. 마르칠리는 베른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야외 수영장이다. 아레강과 바로 맞닿아 있고, 국회의사당의 아름다운 풍경도 한눈에 들어온다. 이 수영장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로컬들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먼저, 입장료가 무료인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상류 쪽을 향해 걸어 올라가야 한다. 마르칠리에서 아이흐홀츠(Eichholz)까지 걸어가면 적당하다. 그다음, 물살에 몸을 맡기고 둥실둥실 떠내려오다 보면 다시 마르칠리에 도착하게 된다. 아레강은 래프팅으로도 유명하다.

7. 루체른의 호숫가 수영장, 제바트(Seebad)
제바트 풀장은 루체른 구시가지, 나시오날케(Nationalquai) 선착장과 맞닿아 있다. 밖에서 보기에 커다란 나무 상자같아 보이지만, 제바트의 독특한 매력은 근접한 팔라스 호텔과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다. 호숫물에 뛰어들어 몸을 식히고 있자면, 필라투스 산과 카카엘(KKL)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수영장은 1884 년에서 1885 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수 차례 레노베이션되었다. 호수를 향해 두 개의 풀장이 만들어져 있고, 호수로 직접 향하는 통로도 만들어져 있다. 무엇보다 도심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로컬들에게도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수영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 잔 기울이며 식사를 하기에도 손색 없는 곳으로 인기를 누려왔다. 특히 노을을 즐기기 위해 로컬들이 많이 찾는데, 때로는 DJ 이벤트나 행사들이 개최되어 더 풍성한 저녁을 선사해 준다.

8. 취리히의 힙하고도 문화적인, 제바트 엥에(Seebad Enge)
제바트 엥에는 호숫가에 위치한 풀장으로, 저녁에는 신선한 음료와 홈메이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낮에는 광합성과 수영을 원하는 이들로 가득 찼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 후 휴식과 모임을 위한 낭만적인 바로 변신한다. 밤 8 시 이후에는 수영이 금지된다. 1960 년대에 만들어진 이 풀장에서 음료와 함께 그릴에서 요리한 맛있는 안주도 맛볼 수 있다. 여름에는 저녁 낭독, 콘서트,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매일 문을 연다.
페달로(Pedalo)라고 불리는 페달 보트를 대여해서 취리히 호수를 유유자적하게 떠다녀 보아도 좋다.

9. 레만(Léman)호 크루즈와 웨이크서핑
레만호는 중앙 유럽 내륙 호수 중 가장 큰 것으로, 북쪽 면은 스위스에서, 남쪽 면은 프랑스에 속해 있는 호수다. 총면적이 580km², 길이가 73km 에 달하는 바다 같은 호수다. 이 호수를 가장 잘 탐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람선에 오르는 것이다. 호수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유람선이 여러 가지 운항되는데, 승객들은 스위스 쪽 항구는 물론, 프랑스와 면한 항구에서도 자유로이 배에 오르내릴 수 있다. 벨 에포크 스타일의 유람선은 140 년 동안 아름다운 항해를 해왔다. 배 위에서 보는 풍경은 항구와 성(시옹/Chillon, 모르쥬/Morges, 롤/Rolle, 이부아/Yvoire 등)에서 시작해 포도밭을 넘어 스위스와 사보이(Savoyan) 알프스의 눈 덮인 봉우리까지 뻗어간다. 보트 선착장은 여러 도시 투어(제네바/Geneva, 로잔/Lausanne, 몽트뢰/Montreux, 브베/Vevey) 등 다양한 여행의 출발점이 되어준다.

호숫가에 내려 특별한 체험을 즐겨보아도 좋다. 바로, 서핑이다. 스위스에서 서핑을? 바다가 없는 스위스에서 서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할지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잔잔한 호수 위에서 스릴 넘치는 서핑을 할 수 있다. 바로, 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내는 물살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웨이크서프(Wakesurf) 라 부른다. 바다에서의 서핑보다 시시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역시 천만의 말씀이다. 스위스 호수 주변, 특히 레만(Léman) 호수 주변으로는 알프스 봉우리와 초록 들판,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포도밭이 펼쳐진다. 이 기막힌 풍경 속에서 보트가 만들어내는 세찬 물결을 따라 스릴 넘치는 서핑을 즐길 수 있다.

10. 루체른 호숫가에서 만나는 해변 감성
햇살 좋은 여름날… 해변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바다가 하나도 없는 스위스에도 해변이 있다. '리도(lido)'라 불리는 호숫가 수영장이 곳곳에 있는데, 휴양지 분위기가 넘쳐흐르고, 발가락 사이로 고운 모래도 느낄 수 있다. 루체른 리도는 루체른 호숫가에 있는데, 300m 길이에 걸쳐 이어진다. 알프스 가장자리에 있는 이 모래사장은 루체른 로컬들이 즐겨 모이는 장소로, 여행자들도 매료시킨다. 비치는 리도 시설의 일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른 아름다운 시설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루체른 기차역에서 6, 8, 24 번 버스를 타고, "베르케르스하우스-뷔어첸바흐(Verkehrshaus – Würzenbach)"에서 하차하면 된다. 공영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다.

11. 티치노(Ticino)의 협곡 캐녀닝
캐녀닝은 알프스의 험난한 계곡을 속속들이 탐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형성한 계곡을 캐녀닝으로 탐험하는 것은 스위스의 가장 깊은 속살을 체험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 티치노는 캐녀닝의 천국이다. 스위스 동남부에 위치한 티치노주는 이탈리아와 접경으로, 많은 강과 협곡이 있어 캐녀닝 모험의 성지로 알려져 있으며, 수십 개의 캐녀닝 코스가 있다.

첸토발리(Centovalli), 베르차스카(Verzasca) 계곡, 마지아(Maggia) 계곡 등도 유명한데, 특히 벨린초나(Bellinzona)와 비아스카(Biasca) 사이 크레시아노 계곡(Valle di Cresciano)에 위치한 보제라(Boggera)는 아드레날린을 갈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루트로 유명하다. 티치노의 밤나무숲을 30 분 정도 지나면 협곡이 나타난다. 수정처럼 맑은 물과 유속이 빠른 강, 작은 폭포 등 야생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협곡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크레시아노 계곡은 티치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에서 가장 따뜻한 곳인 만큼 호수 주변으로 야자수를 볼 수가 있다. 캐녀닝은 약 2-3 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많은 하강 코스, 점프 및 슬라이딩 코스가 많아 스릴 만점이다. 8m 의 점프 코스, 8m 의 슬리이드 코스, 15m 의 현수하강을 체험할 수 있다.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고, 중급 이상도 이런 스릴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보통 5 월부터 10 월까지 할 수 있고, 협곡까지 약 30 분 정도 걷는다. 혹은 헬기를 타고 가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